

동아제약, 대표 강정석 부사장 선임

3월29일 주주총회에서 공동 대표이사 확정 ... 후계구도 마무리 가능성

동아제약은 3월29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이사진의 합의 아래 강신호 회장의 넷째 아들 강정석 전무(영업본부장)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강정석 부사장은 김원배 사장과 함께 동아제약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연구소장 출신인 김원배 사장은 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하고, 강정석 부사장은 영업부문을 중점적으로 맡기로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강정석 부사장은 동아제약의 핵심 계열사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도 맡고 있어 동아제약의 후계구도가 사실상 굳혀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3월29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강신호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전격 화해한 둘째 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와 유충식 부회장을 양측이 합의한 대로 이사로, 그리고 권성원 포천중문의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각각 받아들이는 의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

동아제약은 새 이사진으로 첫 이사회를 열었고, 수석무역 강문석 대표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강정석 전무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대해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반대의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충식 부회장도 강신호 회장과 함께 회사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9>